민족문화연구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 특집의 말

이번 특집은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이란 주제로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한국 문학/문화의 ‘이름 없는 자들’과 비정형 네트워크〉 연구과제팀이 주최한 제1회 국제 학술대회 및 제1회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3편을 수록하였다. ‘아토포스(Atopos)’란 장소를 뜻하는 희랍어 ‘토포스(Topos)’에 결여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아(a)’가 결합한 말로서, 어떤 장소에도 고정될 수 없거나 정체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 및 존재를 의미한다.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은 어디에도 고정될 수 없는 비장소성의 존재를 ‘호모 아토포스’라 명명하고, 한국 문학/문화 속 소수자/타자의 존재 양상을 새롭게 탐색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특집에 실린 3편의 논문은 신분 간/국가 간/인종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다층적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먼저, 최기숙은 “조선시대 노-주의 연결망과 공동체성, ‘아카이브 신체’—『쇄미록』의 노비 기록에 대한 문학해석학적 연구—”에서 오희문(1539~1613)의 일기 『쇄미록』(1591.11.27.~1601.2.27.)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일상적 삶에서 노비와 노주 양반의 관계가 단지 신분적 위계를 유지하는 명령-수행의 수직적 관계, 지배-복종의 종속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논증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신분이나 젠더 중심의 위계적이고 분절적인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활동, 관계, 정서를 읽어내며 양반과 노비의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삶(살아감. 일상)의 차원’에서 살피고, 조선시대의 노-주 관계가 복합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동시에 물리적 · 환경적 · 정서적 · 영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신분이나 사상, 정치 등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는 포착될 수 없었던 삶의 관계와 정서를 고찰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노-주 관계 및 신분제 사회에 대한 확장적 인식과 심화적 이해를 이끌어 낸다.

장영은은 “양모(養母)와 생모(生母)—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와 모녀 관계의 재구성—”에서 제인 정 트렌카가 『피의 언어』에서 한국인 생모와 미국인 양모를 서사의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머니 찾기와 여성되기(becoming-woman)의 과정으로 제인 정 트렌카의 자기서사를 분석했다. 제인 정 트렌카가 2003년 미국에서 출간한 『피의 언어』는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인의 삶을 직접 이야기한 책이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회고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자신을 입양해 키운 어머니를 새롭게 발견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생모를 위해 어머니의 삶을 글로 쓰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후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혹은 한국 사회가 유기하고 판매한 해외입양인의 삶을 공론화하는 작업에 뛰어들었고, 이러한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글쓰기는 점차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글쓰기로 확장되어 갔다. 해외입양인의 자기서사가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의 일부로 읽혀질 때 한국문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는 무엇을 한국문학이라 규정해야 하는 것일까. 장영은의 논문은 해외입양인의 자전적 글쓰기가 수행되는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조건 혹은 경계를 새롭게 논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소영현은 “비장소의 쓰기-기록—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중심으로—”에서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귀환한 경험을 담고 있는 글들을 ‘비장소의 쓰기-기록’이라는 관점으로 검토한다. 이는 해외입양인의 귀환 기록이 문화적 굴절이라는 변형을 거친 기록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굴절 과정에서 기입된 폭력과 삭제된 감정들이나 침묵으로 삼켜진 목소리들을 복원할 수 있는가를 묻는 작업이다. 또한 입양인의 귀환은, 인종주의와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가로지르는 자신의 몸과 정신에 구조적 배제의 일부를 새겨 넣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몸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비장소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해외입양인의 귀환 서사들

가운데 같은 이야기는 거의 없으며, 정치적 입장도 각기 다름에 주목한다. 해외입양인 서사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소수자/타자 연구에 있어 개별자가 아닌 덩어리로서 인식되는 소수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고 그 고통에 대해 논의하는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한다.

이렇듯 한국 문학/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호모 아토포스’의 존재 양상을 포착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그늘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존재로 가시화하는 작업은 한국 문학/문화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소수자/타자의 존재를 사회의 구성 원리로 이론화·논리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 문학/문화의 경계 및 소수자/타자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